

오존층의 파괴, 폐수로 썩어가는 하천 등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환경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여성분들이 환경수비에 나서고 있다.

'가정에서부터 환경을 보호하자'라는 돌뿌리 가정환경운동이 여성분들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것. 불교자연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자연봉사 시민대학의 여성환경지도자교육을 이수한 졸업생을 중심으로 환경수비대 '녹색살림(가정)' 창단준비에 분주하다.

'나와 만생명과 자연은 하나'라는 주제하에 오는 10월 15일 조계종 총무원 불교회관에서 창단식을 갖는 녹색살림은 △돌뿌리 가정환경운동 △환경의류는 △알뜰녹색가게 △우리농촌 살리기 △환경지킴이 수렵 실천 및 캠페인 등을 주요실천사업으로 전개할 방

등은 물론 신심과 친목을 다지는 등 일식삼조의 효과를 얻고 있다.

이밖에도 한국여성불교연합회, 대구 자비의 전화, 맑고향기로운 모임, 경복련 여성분과위원회, 녹색환경감시단을 비롯 사찰과 신행단체에서 여성분들의 환경보호실천운동에 대한 관심이 급성장하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최근들어 여성분들이 환경운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지난 6월 조계종 총무원이 펴낸 환경지킴이(생명을 푸르게, 마음을 자비롭게)가 한몫을 토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덕현스님(금류정사 주지)은 "환경문제에 대한 불교적 사상과 해법이 담긴 환경지킴이가 배포된후 환경보호에 대한 주부분들의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며 "이제는 신도들이 먼저 분리수



○여성환경도입인 '녹색살림' 출범을 계기로 가정과 사찰에서 여성분들의 환경보호실천운동이 확산될 전망이다.

**가정은 환경보호 전초기지**

**여성불자 녹색운동 '앞장'**

침이다.

이밖에도 녹색살림은 헌옷을 수집 내팔 인도등에 보내기, 가구 및 가전제품 재활용 등을 비롯 환경제품을 판매 수익금을 환경사업에 재투자 등의 세부적인 환경살리기 실천운동도 펼치게 된다.

녹색살림의 한 관계자는 "주부들이 아무 생각없이 쏟아버린 생활폐수가 하천오염은 물론 지구의 환경변화에 악영향을 끼친다"며 "여성분들이 먼저 자연과 인간은 하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근검절약하는 풀뿌리 가정환경운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7월 창립된 공해추방운동불교인모임(회장 성타) 여성분과위원회도 '수도꼭지를 꼭 잠급시다', '절전, 종이를 아껴쓰고 재활용합시다' 등의 스티커를 제작, '아빠·엄마와 함께 놀이는 환경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여성분과위원회는 사찰환경보호회를 통해 다양한 방법의 환경보호운

**환경수비대 '녹색살림' 10월15일 창단 의류은행·물물교환등 실천지킴 마련**

**경복련·공추불 여성분과등 활동 활발**

거, 천연세제를 이용해야 한다고 주장할 정도"라고 말했다.

또한 몇몇 사찰과 신행단체의 여성분들은 정기적으로 일일시장, 유기농 상설시장, 저공해비누만들기, 재활용품 수거 등의 환경보호운동을 펼치고 있다. 이는 누구보다 여성분들이 환경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들 여성분들의 '환경보호운동은 가정에서부터 실천하자'라는 일일시장 물어뜨리기, 음식쓰레기 줄이기, 재활용, 물물교환, 대중교통이용, 에너지 절약운동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실천할

김종근 기자

**제주여성불교단체연 초대회장 김문자씨**

"도내에는 역량이 있는 여성분들이 나름대로 활동하고 있으나 마땅한 구심점이 없어 여성운동이 미약했습니다. 불심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조직을 결성해 여성분들이 역량을 발휘하는데 주력할 계획입니다."

지난 4일 창립된 제주여성불교단체 연합회 초대회장에 취임한 김문자씨(49, 제주불교사회봉사 회장)가 밝히는 사업계획이다.

김회장은 "보다 체계적인 봉사활동과 여성분들의 권익옹호에도 안장설 것"이라며 "직장 사찰단위별 여성단체를 영입하여 조직강화는 물론 도내 각 신행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갖춰

명실상부한 여성분자단체로 태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회장은 또 "교계에는 대다수가 여성분들이지만 대사회적인 활동에서는 초보적인 단계"라고 지적하고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포교와 봉사활동 등을 폭넓게 실시해 여성분들이 신심증장은 물론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도 한몫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도 게을리 하지 않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제주도내 최초의 여성연합회로 출범하는 제주여성불교단체연합회는 그동안 다양한 활동은 펼쳐온 제주불교사회봉사회, 연꽃모임, 바수밀다합창단, 제주불교관음클럽, 새싹교회, 연꽃합창단, 한마음선원 등 8개단체를 주축으로 구성했다. (근)

**여성 게시판**

**여성 환경지도자 교육**

● 불교자연봉사연합회(회장 성덕스님)는 오는 25일~12월 16일까지 3개월과정 시민대학 여성환경지도자교육과정을 무료로 개설한다. 불교와 환경문제, 수질 대기오염, 재활용산업 활성화 방안 등을 교육하며 매주 수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 실시한다.

여성환경지도자교육 이수자에게는 명예환경 감시원 자격증이 지급되며 한국여성 환경네트워크에 가입 활동해 수 있는 자격도 주어진다. (02)723-6258

**노래·꽃꽂이 강좌**

● 무진법장사(주지 법장)는 9월부터 3개월과정 주부분들을 위한 꽃꽂이, 노래부르기 강좌를 개설한다. 주부꽃꽂이 강좌는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3만원, 주부노래부르기교실은 매주 월요일 오후2시부터 4시까지이며 교육비는 3만5천원. (02)932-2333

**화장·피부관리 강의**

● 목동청소년회관(관장 명우스님)은 9월부터 3개월과정 메이크업강좌를 실시한다. 매주 월요일 오전 10~12시까지 진행되며 화장, 피부관리, 머리손질 등 자신의 연출법에 대한 강의를 진행한다. 이밖에도 민요·관소리 강좌가 매주 화요일, 비디오편집이 매주 금요일에 진행되며 시간은 각각 오전 10시. (02)646-0181

**주부 영어교실등 운영**

● 길동종합사회복지관(관장 재원스님)은 가을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반강좌는 홈패션(매주 월·수), 양재(매주 화·목), 메이크업(매주 수), 주부영어교실(매주 월·목) 등이며 시간은 각각 오전 30분, 접수는 매일 10일까지이며 대상은 주부 및 미혼여성이다. (02)985-0161

만 화 **법구경** \* 수행승의 장 \* 자기가 얻은것을 가볍게 말라 남을 부러워 하지도 말라 이 향 원

하~이 아~임  
어제 또 부러워한 모양이군  
해~ 죄송합니다  
과장님 하루저녁에 2.3백 날리는 술자리 해 봤어요?  
영! 이게 무슨 소리여?  
어제 동창들이 하도 귀찮게 굴기에 따라가 왔는데  
이건 "돈"이 돈이 아니라 구요  
술한병에 5.60만원 담으로 2.30만원 뿌리니 기가 막히더라 구요!  
한달 내내 고생해서 돈 백 받는 내가 조라하기 짝이 없더라구요  
자네 동창 "백만석"인가 하는 그 오랜지족하고 어울리는 거야?  
그러다가 들 들면 신세 망치는 수가 있어  
헤~ 그런 염려는 안하셔도 돼요  
백만원대 월급장이 주세에 개들처럼 쓰고 놀 꼬부리나 있어야 망하는 말든 하죠  
아들이 자주 전화 걸이니까 귀찮아서 그냥 한번씩 동참 할 뿐이 예요  
"근목절목"이란 말 아니?  
먹을 가까이 하면 먹이 묻는다고 했어  
자기가 얻은 것을 가볍게 말라 남을 부러워 하지도 말라 마음을 안정을 얻지 못한다  
공과장님 저... 부... 부탁이  
크~ 술냄새  
어제 또 과장님 어울렸어?  
그래서 사우나에라도 가겠다는 거야?  
그... 그거 아니라  
저... 오늘 카드 결제 날이 오늘이라 2백만원만 줄  
이 친구 기어코...  
그러니까 내가 뭐였어. 작년만 해도 그녀석들을 잘 따돌리더니...  
요즈음은 내가 준 밥구경 잘 잊지 않나 보군  
저... 잘 잊지 않는 건 아니군...  
자기 자신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한테 뒤죽돈 내겐 없어  
아이고 공과장님 제발...  
비록 적게 얻었더라도 얻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는 수행승은 신들도 칭찬할 것이다 그의 깨끗하고 게으르지 않은 생활을 보고

7월의 문화인물 도선국사 도선국사 위상 바로잡기

**천년의 법력을 지닌 도선국사는 누구인가?**

베스트셀러 풍수 의 작가 김중욱이 3년 만의 침묵 끝에 내놓는 할 지도자의 비전 제왕의 길 무나심시우

김 중 록 장 편 소설

**제왕의 길**

이 땅을 만다라로 보고 불법으로 다스린 도선국사의 거대한 생애!

한 나라의 운명은 용기있는 지도자에 의해 거듭난다. 한 개인의 운명은 지혜로운 선도자에 의해 거듭난다. 어지러운 시대 상황 속에서, 천년의 무심한 시간을 뛰어넘어 역사 속에 거인 하나가 걸어나왔다. 이 땅과 겨레를 눈물겹게 사랑했고 청사를 빛낸 지도자의 출현을 고대한 선지자 해동의 대사가, 당대의 선승(僧師), 제왕학의 달인 도선국사 일대기.

평소 아끼던 청년작가가 우리 시대의 묵시록 같은 소설을 써냈다. 울머는 김도다는 관재자가 관치는 시절에 정치한다는 일이 한없이 무부럽기만 하다. 이 소설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 하나를 지운다. 그것은 남들 모르는 지도자를 우리 스스로 길러내야 한다는 역사적 사명이다. -제정구(국회위원)

출판원고 보내주시면 잘 기우어 보겠습니다

**태인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

THE LAST WORD

**부처님의 유언**

공마 스님 역해

스승도 없고 제자도 없다. 이제 세상은 모두 다 도(道)를 놓아 버렸다!

부처님 자비의 극치!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남기신 금쪽 같은 최후의 유언!

아! 아! 말세의 중생들을 위해 끝까지 간곡하게 당부하신 이 유언은 부처님 자비의 극치를 나타낸 것이로다. 그러므로 제자가 된 사람들은 아니 두 말로 땅을 덮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이 최후의 말씀을 뼈에 새겨두고 간에 기록해야 할 것이다

신국본 400원 값 7,000원

전국 유명서점 장사 판매중!

**태인출판사**

서울시 성북구 삼선동4가 36 전화 927-2831 팩스 924-3236